

[종교·복지]



전남·북 사찰 여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피서의 여러 방법 중 확실히 더위를 가시게 하는 것은 바다 보다 산이다. 계곡이라도 있으면 금상첨화, 흐르는 물에 밭그고 있

노라면 신선이 부럽지 않다. 여름 휴가를 위해 산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산 속에 있는 절이다. 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숙식을 하며 절집 생활을 체험해보는 템플스테이는 지난 2002년부터 펴지기 시작해 지금은 일반인들에게도 보편화돼 있다. 절마다 내놓은 프로그램들이 다양해 어린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는 하면, 다도를 가르쳐주는 곳도 있다. 올 여름 전남·북의 사찰에서는 어떤 템플스테이가 준비돼 있는지 알아보자.

한문학당, 요가, 좌선, 트레킹… 다채

◇청소년을 위한 템플스테이=해남 미황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한문학당을 개최한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굳어진 몸을 풀기 위해 실내를 빙빙 도는 포행도 한다. 다도, 문화체험, 요가 등이 포함돼 있으며 하루 3~4시간의 한문 강의를 스님으로부터 듣는다.

순천 송광사는 8월5일부터 2박3일 동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9일부터 2박3일 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수련회를 마련했다. 전북 남원 실상사도 8월9일부터 3박4일 동안 중·고등학생을, 8월16일부터 3박4일 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불교학교를 연다.

◇성인을 위한 템플스테이=해남 미황사는 단기 출가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템플스테이 치고는 다소 긴 6박7일 동안 출가들과 똑같은 생활을 체험해보며 '참가아'를 찾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다.

구례 화엄사에서는 4박5일 동안 간화선(看話禪) 수행

을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회두를 근거삼아 수행을 하게 된다.

전북 남원 실상사는 '화림원 스님과 함께 하는 단식 좌선'을 마련했다. 조용한 산사의 아침을 맞으며 머리와 마음 뿐 아니라 장기를 비롯한 몸속도 깨끗하게 비우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가족을 위한 템플스테이=해남 대흥사는 '제2회 초의선사 다도아카데미'를 통해 다도(茶道)법을 가르쳐준다. 아이들과 함께 배우는 다도는 휴가 후 가정에 돌아와 단란한 시간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법하다.

전북 부안 내소사에서 실시하는 '트레킹 템플스테이'

역시 가족들이 함께 하면 좋은 프로그램. 내변산 국립공원 일대를 4시간 동안 걷는 트레킹과 내소사의 템플스테이를 접목시킨 것으로, 내소사 전나무숲을 출발해 제霸이고개, 평소폭포 등을 둘러보고 절에서는 참선과 발우공양 등을 하게 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전남 결손가정 청소년 등

196명 백제문화 도보순례

광주·전남 지역 결손가정 및 조손가정 청소년 42명이 청소년적십자 단원 154명과 함께 도보순례에 나선다.

오는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3박4일 동안 실시되는 '결손가정, 조손가정 청소년과 백제문화 도보순례'의 총 길이는 충남 공주에서 부여까지 모두 37.2km.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한국토지공사 광

주·전남지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극한 상황을 이겨내면서 자신감을 얻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가자들은 도보 순례와 함께 공성산, 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 부여국립박물관, 부소산성, 고란사, 낙화암, 정립사지 등을 견학하며 백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돋는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1991년부터 '국토순례'를 실시해 왔고, 2005년에는 제주도, 2006년에는 섬진강에서 실시한 바 있다. 문의 062-573-0541. /정상필기자 camus@

전남·북 여름 템플스테이 일정

지역	사찰	프로그램	날짜	대상	문의전화
미황사	한문학당	7. 29~8. 5 8. 8~15		초등학생	061-533-3521
	침사립의 향기 (단기출가 수행 프로그램)	8. 18~25 9. 15~22		성인·학생	
대흥사	기족과 함께 하는 숲 속미을 템플스테이	8. 8~11 8. 15~18		가족	061-535-5775
	침선수련회 제2회 초의선사 다도 아카데미	8. 16~22 8. 1~5		성인	
구례	화엄사	여름수련회 간화선	7. 28~31 8. 3~6 8. 10~15	성인	061-783-7600
순천	송광사	여름수련회	8. 9~11 8. 5~15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061-755-0107~9
나주	불회사	관음대침회 여름수련회	7. 28~31 8. 4~7 8. 11~14 8. 18~21	성인	061-337-3440
전북 김제	금산사	여름수련회	8. 3~7 8. 13~19 8. 24~26	누구나	063-548-4441
전북 부안	내소사	트레킹 템플스테이	7. 27~29 7. 31~8. 2 8. 4~5 8. 11~13	누구나	063-583-3035
전북 금원	템플스테이	상시 운영		누구나	063-636-3031
	여름불교학교	8. 4~5 8. 11~13		중·고등학생	
전북 금원	화림원 스님과 함께 하는 단식 좌선	8. 2~5 8. 9~12 8. 16~19		누구나	063-636-3031

<한국 불교문화 사업단(www.templestay.com) 제공>



종교칼럼

떠날 준비는 돼 있는가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생을 떠나는 일도 일종의 '떠남'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명바우 이야기'가 떠오른다.

명바우라는 머슴에게 하루는 주인 영감이 "내일은 장에 다녀 오너라"고 일렀다. 해질녘에나 불쑥 나타난 명바우에게 주인은 "가는 장에는 안 가고 온 종일 어디를 갔다 오느냐?"고 나무라자, 명바우가 "장에 가라고 하셔서 두렵지고 장에 갔다 옵니다"라고 대답했다.

어이없는 주인은 "장에 가려면 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쓸데없이 두렵만 지고 덜렁 덜렁 갔다 오면 어떻 게 하느냐?"

너 같이 명청한 놈이 또 어디 있겠느냐?"고 방망이를 쭉어 체워 주면서 "너 보다 더 명청한 놈이 있거든 체워 주어야 한다" 했다.

이후 주인은 병이 위중해져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느니라"고 명바우에게 말했다. 명바우가 "가시면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묻자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대체 자기가 떠난다고 했지 황전이니 저승이니 하는 것이 막연하고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이 "잘 모르겠구나"하고 답하자, 명바우는 "가시면 언제나 가십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영감님께선 가셨다가 언제쯤 오시게 됩니까?" 주인 영감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옛날을 알 수가 없었다. "그것도 잘 모르겠구나"하고 답했다. 그러자 명바우가 "나는 명청해도 가는 곳이 분명했고, 돌아올 것이 분명했는데, 주인 영감님께서는 갈 곳도 모르고, 갈 때도 돌아올 때도 모르시니, 실은 이 명청이 방망이는 주인 영감께서 차서야겠습니다"하며 끈을 풀어서 주인에게 채웠다는 이야기다.

사실 이 명청이 방망이는 명바우 뿐 아니라 세상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차고 있다. 죽을 앞에서 인간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구별과 차별이 없다.

이렇듯 생자필멸(生者必滅)의 진리를 알고 준비할 때 큰 안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치를 모르고 간다면 우리는 갑자기 다크 크고 작은 불의의 사고 앞에 불안과 초조로 얼룩진 허망한 삶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쯤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자은기독선교회

저소득층 모자 가족

2박3일 부흥성회

"신안에서 피서와 신양 활동 두 마리 토키를 동시에 잡으세요."

자은도 출신 신앙인들의 모임 '자은기독선교회' 회장 표창길 장로)는 오는 30일부터 8월1일까지 2박3일 동안 신안군 자은면 문장리 자은두모체 육공원에서 대부흥성회를 연다. 강사는 대전 중문교회의 장경동 목사가 나서며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간증 할 예정이다. 행사를 마련한 자은기독선교회는 주로 서울에서 활동 중인 자은도 등 신안군 출신 목회자 및 장로, 신자들의 모임으로 자은도 등 현지에서 4차례 전도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문의 061-275-9199.

로뎀갤러리

식수업 맨날 친분파상! 신제품출시

로뎀갤러리 상점공간



문의 062-232-8966
010-5256-8966

베트남
국제결혼

제3회 결혼의 신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오자이 국제결혼이 함께합니다.



062-232-8966
010-5256-8966